명상 · 순종 · 봉사 등 간디의 가르침

"불살생 · 비폭력은 가장 위대한 사랑"

◇손녀들과 함께 한 생전의 간디.

'간디 명상록'

간디 지음 / 이명권 옮김

열린서원 / 8천원

"모든 사람의 눈으로부터 온갖 눈물을 닦아내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간디)

20세기의 위인들 가운데 한 사람인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Gandhi, Mohandas Karamchand : 1869~1948). 인도 민족 운동의 지도자이자 인도 건국의 아버지인 간디는 비단 정치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종교분야에서도 혁명적인 지도자로 일컬어진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하트마(위대한 영혼, 큰 성인)'라는 존칭을 부여했듯이, 아직도 그를 인류의 성자로 여기고 있는 것은 진리에 대한 그의 헌신 때문이었다.

그에게서 신은 곧 '진리'였으며, 진리를 붙잡고 실천하는 '사티야그라하(眞理把持)'야말로 간디의 일생을 대변해 주는 본보기였다. 그는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세미한 신의 소리에 따라 행동했고, 인도가 당면한 갖가지 부조리한 현실들을 타개해 나가고자 수없이 단식을 거듭하면서 '불살생 · 비폭력(Ahimsa)'이라는 위대한 저항정신을 인류사에 커다란 유산으로 남긴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지구상에는 전쟁과 폭력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한반도의 상황도 예외가 아니다. 국가와 사회마다 갈등과 대립의 모순이 표출되고 있는 오늘날, 끝끝내 '양심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진리로 하나 되게' 하려던 간디의 메시지를 차분히 음미해 보는 것은 어떨까.

'진리와 사랑'으로 요약되는 간디의 사상을 엿보게 하는 <간디 명상록>(열린서원)은 오로지 '진리 실험'으로 평생을 보냈던 간디의 가르침을 신성(神性)에 대한 그의 지적 기반, 도덕적 수행, 영적 수행, 영적 체험 등으로 나눠 담고 있다. 독자들은 간디의 종교적 영성의 뿌리를 파헤치면서 사랑, 영혼, 명상, 봉사, 순종, 기도 등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지혜와 영감을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독자들에게 실제 필요한 것은 보석 같은 진리 보다는 삶의 구석구석에 적용할 수 있는 그현실적인 조언들이 아닐까 싶다. 거기에는 건강관리로부터 혁명운동에 이르기까지, 험난한 세상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관한 명언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혼돈의 세계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을 예로 든다면 이렇다. "사방이 거짓으로 둘러싸여 자신마저 기만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태만이나 무지로 인하여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진리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또 그의 혁명적 저항정신은 이렇게 표출된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독재자는 내 속에 있는 양심이다." "불살생은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 그것은 최상의 법칙이다. 이것만이 인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다."

인도 현대불교의 아버지인 암베드카와 함께 이끈 천민해방 운동과 여성해방 운동, 시민 불복종 운동, 남아프리카에서의 '소금세 신설에 반대한 운동' 등 약자를 위한 그의 모든 노력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까닭은 '진리의 신'을 믿고 주저없이 실천할 수 있었던 용기에서 비롯됐다.

이 책의 역자인 이명권 '코리안 아쉬람'(비움과 나눔의 공동체) 대표는 "아쉬람에서 물레질을 하며 자급자족 의식을 일깨우고, 채식주의의 실천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운동과 교육에 정열을 쏟기 시작한 것이 간디의 위대한 '아힘사'가 탄생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산 · 절집 노래한 여행산문집

'여운'

정끝별 지음

화니북스 /8천7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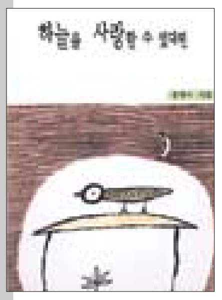
시인 정끝별(40)이 산과 바다, 강, 절집을 찾아 나선 여행 산문집인 <여운>(화니북스)은 마음의 상처, 삶의 덧없음을 어루만져 주는 28편의 시와 19개의 여행지를 소개하고 있다.

눈물처럼 후두둑 지고 말 선운사 동백꽃, 여름 깊던 신륵사 무명탑, 사랑과 기다림으로 이어진 부석사 가는 길, 쌍계사 춘백에서 바래봉 철쭉사이 등 꽃피는 산사와 해저무는 바닷가 마을, 눈내리는 강가를 아름다운 시와 산문으로 노래하고 있다.

작가는 '여행하게 만드는 시는 단 하나의 풍경에 시인의 전 존재가 내던져지고 녹아드는 시'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 풍경을 찾아 떠난 작가 역시, 시인의 존재가 녹아 있는 풍경에 다시 자신의 존재를 내던져 산문을 한편씩 완성한다. 이 책에는 시를 통해 바라본 풍경과, 실존하는 우리나라 산과 바다의 정직한 풍경, 그리고 다시 작가 정끝별이 설렘과 여운을 보태 빚어낸 세 가지 풍경이 어우러져 있다.

열린사이버대학교에서 문예창작 과목을 가르치는 정끝별 시인은 1988년 <문학사상> 시 부문, 199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평론부문에 당선되어 시작과 평론 활동을 겸하고 있다.

'뇌성' 장애인의 영혼의 소리



'하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정상석 지음

대희 /6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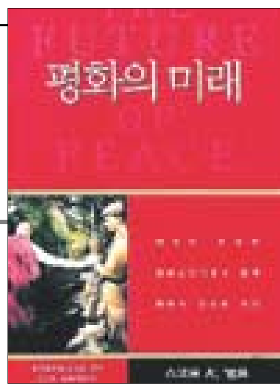
"이젠 아무리 목놓아 불러봐도 아무 대답없는 아버지, 어린 시절 제가 아플 때면 그 어두운 앞마당에서 남몰래 안타까워 눈물 지시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께 저의 그리움과 눈물이 베어있는 첫 시집을 바치며…."

33년 동안 자리에 누워 있는 정상석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떨리는 몸과 손가락 하나로 자판을 두드리는 일. 내면에 쌓인 고요를 세상 밖으로 표출한 시인은 새 한 마리가 되어 하늘을 향해 비상하고픈 장애인의 꿈과 사랑, 소망을 고루 적고 있다.

뇌성마비 장애인 정상석 씨의 시집 <하늘을 사랑할 수 있다면>(대희)은 고도의 기교나 화려함은 없지만 자신의 영혼에서 들리는 소리를 마치 누에고치가 실을 뽑듯이 풀어내, 독자는 외로운 음유시인을 만나는 느낌이 들 것이다.

더구나 이 시집은 춘천 석왕사 신도인 정상석씨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웃들이 모여 만들어 준 것이어서, 더욱 아름답게 느껴진다. 강원도청 사회복지과 민원실에 근무하는 박영림 사회복지사의 주선으로 도서출판 대희, 표지화를 그린 정현우 화백, 작품해설을 쓴 기정순 시인, 사진가 조명희씨 등이 함께 정성을 보시한 책이다.

전문가 서평



'평화의 미래'

스코트 A. 헌트 지음 / 김문호 옮김

아름다운 사람들 / 2만8천원

평화 '코드'로 본 인류의 미래는?

달라이 라마 등 21세기 평화실천가들 인터뷰

20세기에 일어난 가장 잔혹한 사건은 무엇일까.

유럽인들은 아마도 2차 세계대전 중에 자행된 나치에 의한 유태인 학살 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에서 단지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수십만의 사람이 학살당했다. 아우슈비츠 학살은 이제 너무나 유명해져서 누구나 인간에 의해 저질러진 인간 범죄의 최악의 사례라고 생각할 것이다.

1960년대 초 아프리카의 르완다에서 후투족은 인종청소를 목적으로 투치족을 학살했다. 후투족은 2달 동안 하루 평균 11만5천명, 많을 때는 하루에 4만5천명, 2초 당 한 명을 살해했다. 1970년대 중반 캄보디아의 내전 중에 정권을 장악한 크메르 루즈는 약 150만명에서 200만 명의 동족을 살해했다.

이러한 대량 살상은 1990년대 이후에도 북부 이라크에서, 보스니아에서도 쉴새없이 자행되었다. 세계의 경찰 국가라고 자임하는 미국에 의해 저질러진 대량 학살도 있다. 베트남전의 와중에서 미국은 캄보디아에서만 15만 명의 민간인을 폭격을 통해 살해했다.

아일랜드에서는 약 350년간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간의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50년 이상 보복테러가 반복되고 있다. 이 공방전은 급기야 9.11테러로, 연이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이라크 전쟁으로 이어졌다.

힌두교에서는 '무서운 것을 평화로운 것으로 갚아야 한다'고 말한다. 유교는 '세상의 평화를 위해 개인의 삶을 수양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슬람교는 '선을 행하는 일에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라'고 가르치고, 기독교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한다. 불교는 늘 자비를 강조한다.

이런 여러 종교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20세기에만 이토록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국가의 이익이나 인간의 욕망 앞에 종교적 가르침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종교가 아집이 되어, 인간이 인간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억압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며, 범죄자들에게 종교는 심리적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버드대학에서 정치철학을 공부하고 캘리포니아대학에서 불교를 가르치고 있는 스코트 A. 헌트가 저술한 <평화의 미래>(원제: THE FUTURE OF PEACE)는 바로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과연 인류에게 평화로운 미래는 있는가. 인류의 역사는 말하고 있다. 18세기보다 19세기가 잔인했고, 19세기보다 20세기가 잔인했다. 그렇다면 21세기가 20세기보다 잔인할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온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그래서 헌트는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20세기의 위대한 평화 실천가를 찾아 세계 곳곳을 누비며 그들과 인터뷰를 하고 그것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평화의 미래>는 평화로운 내일을 향한 강력한 염원을 담은 평화의 실천가와 평화의 메신저를 찾아다닌 기록이라 할 수 있다.

헌트가 만난 인물들은 다양하다.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지금도 투신하고 있는 아웅산 수지여사, 설명이 필요없는 달라이 라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실천가들, 베트남 희망의 투사 틱 캉 도 스님, 중앙아메리카의 평화의 대사 오스카 아이리스, 캄보디아의 간디라 불리는 마하 고사난다 스님, 지구를 구하기 위한 환경운동에 매진중인 동물인류학자 제인 구달 등이 바로 그들이다. 이 인물들을 인터뷰하기 위해 헌트는 험로를 헤매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을 받기도 했다. 특히 연금 상태에 있는 아웅산 수지 여사와 인터뷰 한 녹음 자료와 컴퓨터 디스켓을 안전하게 국외로 빼돌리기 위해서 007을 방불케 하는 작전을 벌이기도 해야했다.

헌트는 이러한 정신적 지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낙관적인 생각, 평화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 평화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덕을 배우고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며, 관용과 인내를 실천하는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헌트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다.

"폭력은 줄어들 것이며 결국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자비로운 본성의 승리를 확신한다. 이런 확신은 평화실천자들과의 감동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독자 여러분도 이 책에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응백 / 문학평론가 · 휴먼앤북스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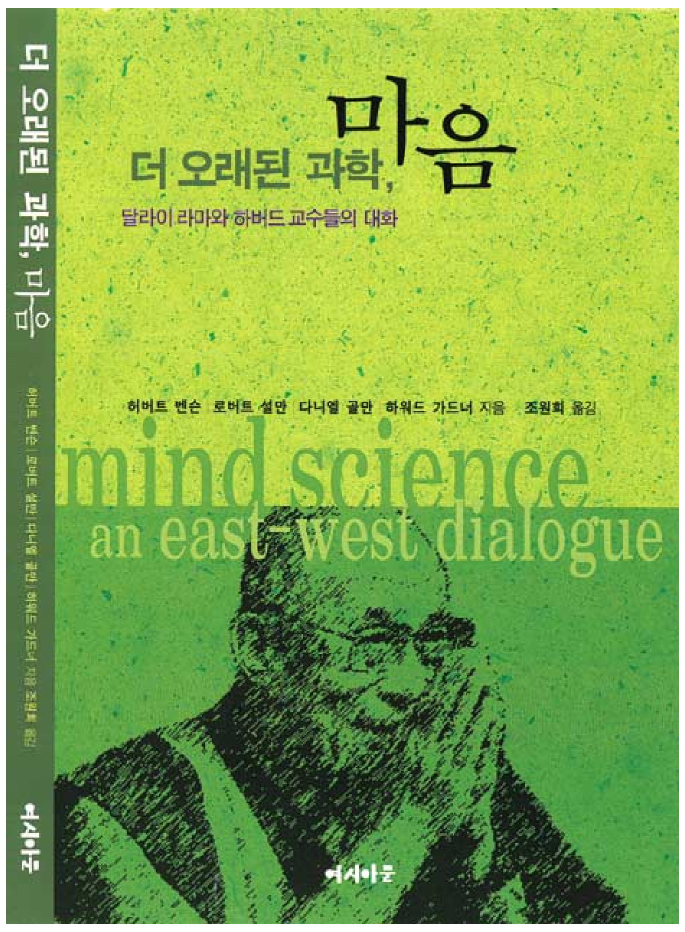
<평화의 미래>는 평화실천가들이 현장에서 전하는 휴먼 다큐멘터리다.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 베트남의 틱 캉 도 스님, 미얀마의 아웅산 수지 여사, 동물 연구가 제인 구달 박사 등의 해학 넘치는 이야기를 담았다.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7-8881(代) Fax : (02)737-0697 http://www.yosiamun.com

" 마음은 정신적 사상들이 상호연관된 대단히 복잡한 네트워크입니다. 마음은 몸의 생리학적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 어 있는 역동적이고 항상 존재하는 과정(process)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 달라이 라마 –

더 오래된 과학, 마음

달라이 라마와 하버드 석학들 '마음과학(Mind Science)'에 대해 말하다



허버트 벤슨 외 / 조원희 옮김 신국판 / 200면 / 9,000원

마음과 몸의 섬세한 관계란 무엇인가?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이 관계에 대해 불교 사상의 대가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서양과 동양의 접근법을 통합하여 마음의 본성, 인간성장 잠재력,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이르는 것이 가능한가?
『더 오래된 과학, 마음』은 현대 과학과 불교 간의 역사적 대화의 시작을 기록함으로써 이들 문제를 탐구한다.
달라이 라마가 인도 · 티베트 불교학, 의학, 정신의학, 심리학, 신경생물학, 교육학의 권위자들과 만난 하버드 의대 심포지엄에 기반하여 인지, 인식, 마음과 몸 연결 작용에 관한 중요하고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199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는 전통적인 서양 의료 체계에 마음의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주로 하버드 의대를 중심으로 이러한 치료 과정에서 소홀히 다루던 심적(心的)요소를 인정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치료에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마약 성분의 진통제 투여밖에는 해결책이 없는 만성 통증 환자에게 동양의 명상기법을 도입하여 환자 스스로 통증을 받아들이고 삶의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도록 돕는다. 통증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통증을 받아들이는 환자가 변해 주위 사람들과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즐기도록 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환자의 심적 요소를 개선하여 삶의 태도나 질을 개선하여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동양의 명상 기법을 도입하였다.

이제 이런 의학계의 변화는 우리나라에서도 낯선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하버드 의대를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난 것일까? 그 해답은 하버드 의대의 허버트 벤슨 박사에게 있는데, 그는 달라이 라마의 허가를 받아 80년 초부터 티베트 명상기법을 포함한 여러 명상기법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측정했다.

mind science

☞ 법보시 연락은 02)737-0695로 연락 주십시오.